

## 1) 비를 내리게 하는 파야텐



### 이 동화는요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두꺼비왕 파야낙은 뱀, 말벌, 호박벌, 꿀벌, 개미, 흰개미, 개구리왕을 모아 회의를 열어 대책을 의논합니다. 동물들은 흙을 쌓아 하늘로 가는 길을 만들어 하늘나라로 올라가 하늘나라 병사와 싸워 이기고, 급기야 가장 높은 신인 파야텐을 만나 비를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파야텐은 미안해하며 7일간 비를 내려주고 비 내리는 것을 게을리 한 뱀왕에게 벌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파야텐은 땅으로 내려가는 동물들이 길이 잘 보이도록 불화살을 쏘아 줍니다. 두꺼비왕 파야낙은 파야텐이 불꽃을 좋아하니 6개월에 한번 씩 불을 쏘아 올려 파야텐이 비 내리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라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동물들의 활약을 통해 도전과 협동 정신을 배우고, 농업이 발달한 태국에서 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으며, 비(물)와 관련된 태국의 명절을 통해 자연환경과 문화형성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동물들의 활약을 통해 지혜를 모으고 협동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 자연이 순환하고 농사를 짓는데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 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협력하며 함께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물과 관련된 태국인들의 명절에 대해 조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 살고 있는 태국인들이 자신의 명절(물과 관련된)을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고,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공감할 수 있습니다.



##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이야기 속에서 파야텐과 같은 존재는 누구인가요?
- 농사를 짓지 않는 동물들이 농사일을 걱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동물들은 어떻게 협력해서 길을 만들고, 파야텐의 군사와 싸웠나요?
- 신들의 나라에 간 동물들이 파야텐에게 어떤 부탁을 했나요?
- 파야텐이 비 내려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파야낙이 사람들에게 시킨 일은 무엇인가요?
- 동화 속에서는 동물들이 파야텐을 만나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데, 실제 동물들은 생태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경고할까요?
- 동화 속에서 사람들은 불꽃을 쏘아 올려 신호를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실제 사람들이 생태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알아봅시다.

- 태국인의 인사를 알아봅시다.

**Tip!**

와이(합장)을 하며 사와티카(여성), 사와티캡(남성)라고 한다.

비고: 태국의 사와티카, 인도의 나마스떼, 스리랑카의 아유보완, 한국의 나무관세음보살은 모두 불교 또는 힌두교와 관련된 인사임.

- 우리나라에서도 농사철에 물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고, 물 부족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 이 동화에 나오는 동물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우리 이야기 속 동물의 모습과 다른 점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Tip!

동화 속 뱀의 모습을 보면 힌두신화의 '나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가 같은 지역에서 태동하여 발전한 종교이며, 서로 깊숙이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단편적인 부분이지만 '나가'의 모습을 통해 태국 불교 속에 녹아있는 힌두교의 모습을 찾아보고 종교의 역사와 종교 간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태국 불교와 힌두교에 대한 정보 <http://digital1.blog.me/150047248013>)

- 태국 불교가 우리 불교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Tip!

한국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생에게 전해서 세상의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자는 목표 아래 포교를 중시하는 대승불교인 반면, 태국 불교는 자신의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 소승불교입니다. 소승불교는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며 수행하고, 현세에 공덕을 많이 쌓아야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스님은 엄격한 계율 아래 수행하고 중생은 그런 스님에게 시주해서 공덕을 쌓아 복을 짓습니다. 탁발은 스님들이 거리를 돌며 불자들에게 음식을 시주받는 종교 행위입니다. 스님들은 고기를 포함해서 시주받은 음식을 모두 모아 식사합니다.

- 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또 종교로 인해 먹지 않는 음식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Tip!

태국에서 흔하게 먹는 음식으로는 퐁양공이 있습니다. 퐁양공은 새우와 라임, 레몬 등 다양한 양념을 넣고 끓인 맵고 시고 달고 짠 짜개입니다. 태국인들은 소고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선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문화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는 풍습이 있고, 종교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되는 무거운 음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힌두교인들은 힌두교의 최고신인 시바신이 어릴 때 소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소를 신성하게 생각하여 소를 잡거나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힌두교의 지배세력인 브라만계 농사에 유용한 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종교적 관습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이 동화를 통해 농사가 주요 산업인 태국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태국의 명절 풍습을 찾아 보고 왜 그런 풍습이 생겨났는지 알아보시다.

Tip!

송크란 (송끄란, 송클란)

태국은 태국달력에 맞춰 매년 4월 13일을 설날로 정하고 13, 14, 15일을 연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4월은 우기가 시작되기 직전으로 물이 부족한 시기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농사일정에 맞춰 적당히 비가 오기를 기원하며 송크란 물축제에 벌입니다. 송크란은 산스크리트어로 '변화, 이동'을 뜻하며 변화가 일어나는 새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태국사람들은 송크란 아침에 절에 가서 기도과 시주를 하고 부처님 몸을 깨끗한 물로 씻겨드리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또 가족과 친구들, 주위 사람들에게 물을 끼얹어주며 한해를 다복하게 지내도록 기원합니다. 이러한 풍습이 송크란 물축제로 발전했는데, 거리를 지나는 사람에게 물세례를 퍼붓는 물장난으로 신나게 놀이를 합니다.

(참고자료 <http://blog.daum.net/hywon1004/263602>)

## - 라차프룩

Tip!

라차프룩은 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란색의 아주 성스러운 꽃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4월에 피어나는 이 꽃이 아주 완벽한 모양이라고 여겨 각종 의식에 사용하고, 공무원의 견장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 체험해 봅시다.

-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태국인들이 명절을 지내는 모습을 찾아봅시다. 명절행사에 가보거나 그 중 재미난 풍습을 따라해 봅시다.

Tip!

매년 4월 중순에 있는 재한 태국인들의 송크란 축제 참여하기. 친구들끼리 물축제 해보기.

문의처:

주한태국대사관 <http://www.thaiembassy.org/seoul/ko/home>(안산에서 물축제 시행)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www.bmwh.or.kr/](http://www.bmwh.or.kr/) (송크란과 유사한 미얀마인들의 띠잔물축제)

- 동물들에게서 사람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받는 도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어떤 동물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지 조사하여 발표해 봅시다.
- 기우제와 관련된 동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해 봅시다.(예를 들면, 충주 지역에서는 쏘가리를 용의 상징으로 기우제에 올렸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 유용한 웹사이트

\* 태국 관광청: 태국에 관한 주요 정보,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어 사이트입니다.

<http://www.visitthailand.or.kr/home/>

\* 블로그: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로 태국의 문화, 종교, 음식 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silver7493/140114390635>

<http://blog.daum.net/smily64/13384594>

### - 유용한 책

\* 로버트 쿠퍼, 난타파 쿠퍼 지음 / 김양희 옮김(2005). 『Curious: 태국』 휘슬러

\* 『디스커버: 태국』(2010). 안그라픽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 책자인 <론리 플래닛>에서 내놓은 새로운 태국 여행 안내서로, 태국의 역사, 예술과 문화, 음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원복 글그림(2006). 『가로세로 세계사 2: 동남아시아』. 김영사

베트남, 타이, 캄보디아, 필리핀,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동티모르,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역사에 대해 쉽고 재미있는 만화로 제시한 책입니다.

\* 한국태국학회 저(2005). 『태국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태국학회가 내놓은 책으로 태국의 자연, 민족, 언어, 역사, 문학, 정치, 경제, 외교, 교육, 관광, 풍속, 음식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